

## 실패 경험이 외현적·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김 방 글

광주정신재활센터

오 수 성<sup>†</sup>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실패 경험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자는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점수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14명),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14명), 통제 집단(14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참가자를 실패 경험에 노출시켰으며, 노출 전후에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패 경험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는 자존감이 상승하였고 내현적 자기에 집단에서는 자존감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실패 경험에 의한 자존감 점수 변화량을 가지고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 간의 차이와 내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실패 경험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에 비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에서 자존감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자존감, 실패 경험

\*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수성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Fax : 062-530-2659/ E-mail : ss0h@chonnam.ac.kr

현대인은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성격을 자기애적 성격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의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조직속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야만 인정받는 등 사회자체가 자기애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주병, 왕자병도 자기애적 성격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자기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서 처음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는 진단명이 부여되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장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격은 성격 및 사회 심리학에서 개인이 갖는 독특한 성격 특질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임상적 접근은 미약한 편이다. 더욱이 다양한 하위 유형들이 등장하면서 연구할 영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자기애 유형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더 나은 진단 분류와 치료적 접근을 위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이준득, 2005).

자기애 성향자는 자기자신을 특별히 우월하게 보는 경직되고 과장된 자기개념을 보인다. 그들은 외적 지위로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추구하는데 매우 활동적이고 경쟁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애에 대해 특정한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참을 수 없는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쉽게 화를 내며 방어적이고 우울해진다. Rhodewalt와 Morf(1998)는 자기애 성향자는 타인의 무시나 공격에 취약해서 쉽게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화를 내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조작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성공 피드백을 받았을 때 수행 결과를 능력으로 귀인한 자기애 성향자들은 실패피드백에 대해 분노와 불안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Morf와 Rhodewalt(2001)는 역동적 자기조절모형에서 자기조절 과정이 바람직한 자기를 형성, 유지하고 자기평가적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동기화된 자기개념에 기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자기조절의 노력 뒤에는 웅대화 되어있으나 취약한 자기개념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취약점은 자기애 성향자들이 지속적으로 외부의 자기 확증(self-affirmation)을 추구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의 관점이나 사회적 갈등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 노력들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애적 채택은 보통 자존감과 정서를 일시적으로 유지시켜 주지만 대인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유지하려는 자기개념을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Wink(1991), Hendin와 Check(1997)는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의 특징은 거대 자기표상과 자기 과시적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DSM-IV(1994)에 소개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이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성공과 권력,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빠지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

며,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감하지 못하며, 거만한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거대화된 자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현적 자기에와 유사하지만, 그러한 자기상이 상처 입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부정적 평가에 취약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 말의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7).

박세란(2003)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를 구분하여 자기평가와 귀인양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존감이 높고 우울하지 않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통제집단과 비슷하였다. 또한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일치하며,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우울한 성향을 보였다. 또한 그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비난을 회피하는 방어적 특성을 보였다. 요약하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특성은 자존감이 높고 우울이 낮으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특성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이 높으며 부정적인 평가에 예민하다.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동일한 패턴의 반응을 보이지만,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패턴은 자존감이 낮은 집단과 동일하지만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반응을

최소화하거나 상쇄시키려 한다.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감정, 동기, 수행 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자존감이 높은 집단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경험 후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Brown과 Gallagher(1992)는 성공 또는 실패 피드백을 제시한 후 성격과 능력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타인보다 자신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낮춤으로써 자신을 호의적으로 비추어 실패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성취와 관련된 측면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대인관계 등 다른 영역의 자기평가를 높이는 간접적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Baumeister & Jones, 1978).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적 피드백으로 인해 자아의 다른 영역들까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아의 가치감을 떨어뜨리는 과일반화 영향을 보인다(Kernis, Brockner & Frankel, 1989). 이들 집단의 과일반화 경향은 실패 후 그들이 보이는 감정적, 귀인적, 동기적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 피드백 경험이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차이가 있듯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Morf와 Rhodewalt(1993)는 실험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과제를 파트너와 경쟁 상황에서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정

적인 피드백을 주어 자기에 관한 위협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자기에 관한 위협의 정도가 더 컸을 때, 자기에적 성향자들은 경쟁상대인 파트너의 성격을 더 나쁘게 평가하였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신이 유능한 존재라는 신념과 현실적 근거 없이 고양된 자신감으로 인해 능력에 대한 좌절 피드백이 주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평가 절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박세란(2003)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통제집단에 성공과 실패 피드백을 주고 귀인을 살폈다. 그 결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기평가가 긍정적이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자기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 경험 상황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주었을 때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현적 자기에 특성과 내현적 자기에 특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패 경험 후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자존감이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광주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NPDS)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를 실시하여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 14명,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 14명, 통제 집단 14명을 선정하였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NPDS에서 상위 30%내에 있으면서 CNS에서 하위 50% 내에 있는 실험 참가자 14명을 선정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NPDS에서 상위 30%내에 있으면서 CNS에서는 상위 30%내에 있는 실험 참가자 14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통제 집단은 NPDS에서 하위 30%내에 있는 실험참가자 14명을 선정하였다.

### 측정도구

####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이하 NPDS)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의 진단준거를 황순택(1995)이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에적 성격장애 검사 부분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진단을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에적 성격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한수정(1999)이 사용한 7점 척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한수정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5였다.

####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이하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외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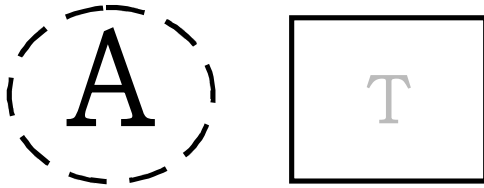


그림 1. 도형에서 (A는 빨강, T는 파랑)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를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7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 변별학습과제

Levine(1966)의 변별학습연구에서 Hiroto와 Seligman(1975)이 채택하여 ‘인지적 전 처치 과제’로 사용한 것을 김연(1985)이 5가지 차원(글자모양, 색깔, 크기, 둘레 모양, 둘레선)의 50장의 카드로 구성하였다. 김연이 카드 분류 방식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색깔 차원에서 검정과 흰색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바꿔 사용하였다. 각 화면마다 글자모양(A와 T), 글자 색(빨간색과 파란색), 글자 크기(큰 글씨와 작은 글씨), 둘레 모양(원과 네모), 그리고 둘레선(실선과 점선)이라는 5가지 차원을 지닌 두 도형이 제시되며 총 32가지의 화면이 이용된다. 실험 참가자는 32가지의 화면 중에서 무선적으로 선택된 4가지 화면들로 구성된 문제

를 모두 8번(연습문제1번과 본문제7번) 풀게 된다. 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차원 중에서 임의로 정한 한 가지 차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것이다. 4가지 화면마다 실험 참가자는 왼쪽과 오른쪽에 제시된 도형을 보고 컴퓨터가 임의로 정하고 있는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도형의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 참가자가 선택한 방향에 대하여 컴퓨터는 성공 혹은 실패의 응답을 해준다. 같은 방식으로 4가지 화면을 모두 본 후에 실험 참가자는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차원을 선택한다. 컴퓨터는 그 선택에 대해 성공 혹은 실패의 피드백을 준다.

#### Branden의 자아존중감 척도

조규선(1999)이 Branden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과 자아존경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별 문항 수는 자아존경이 6문항, 자신감이 12문항으로 총 18문항이었다. 특히 자신감 척도는 한 개인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외모 · 사회적 유능성 · 지적능력 등의 내용영역의 문항들이 각각 4개씩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각 문항에 대하여 실험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6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패 경험 전에 측정 한 내적일치도는 .90이었고 실패 경험 후에 측정 한 내적일치도는 .87이었다.

#### 실패 경험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실험자가 의도한 대로 전처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패 경험 처치 후 실시하였다. 결과에 대한 실패도와 반응 결과간의 무관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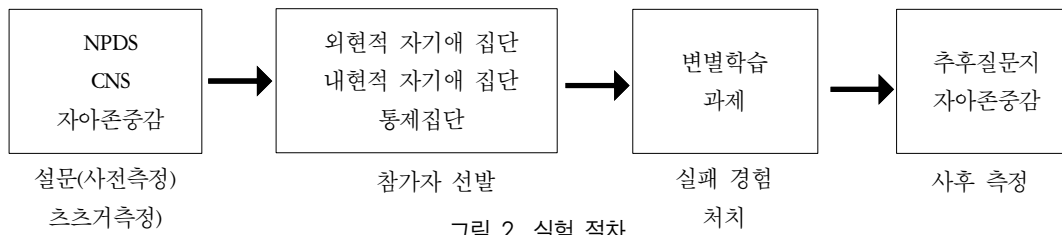


그림 2. 실험 절차

행정도, 실패 경험 후 기분을 측정하기 위한 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패도의 측정은 변별 과제를 행하는 동안 실험참여자가 그 문제들을 얼마나 풀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했으며, 무관성 척도의 측정은 그 문제들이 얼마나 풀려질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는지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iroto와 Seligman (1975)의 것을 윤호균(1984)이 사용한 것을 따랐다. 수행정도의 측정은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했으며 실패 경험 후 기분도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했다.

#### 절차

대학생 191명에게 NPDS와 CNS, Branden의 자존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NPDS에서 상위 30%내에 있고 CNS에서 하위 50%내에 있는 14명을 선정하였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NPDS에서 상위 30%내에 있고 CNS에서 상위 30%내에 있는 14명을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NPDS에서 하위 30%내에 있는 14명을 선정하였다. 실험 참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알지 못했다. 실험 참가자가 실험실에 입실하면, 실시할 과제는 변별학습과

제로써 집중력, 추상력, 기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컴퓨터용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했다. 먼저, 문제 푸는 방식을 차트를 통해 설명해주고, 실험자와 참여자가 함께 풀어보았다. 실험참가자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말하면, 컴퓨터로 연습문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아직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다시 설명해 주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연습문제는 1문제로 참여자가 컴퓨터 버튼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였다. 차트와 컴퓨터를 통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실험 참가자가 실시할 과제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됐다는 반응을 하면 본 문제로 들어갔다. 본 문제는 총 7문제로 모두 실시한 후에는 문제에 대한 수행수준(매우 우수한 수준, 평균 수준, 평균 하 수준)이 제시된다는 말과 함께 다 끝나면 실험자를 불러달라는 지시를 했다. 실험자는 참여자가 보이지 않는 뒤편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실험 참가자들은 실패 경험 처치를 위한 변별학습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패 경험이란 변별 학습 과제의 본문제(총 7문제) 중에 6문제가 틀렸다고 하여 실패의 느낌을 갖도록 조작하였다. 실험 참가자가 본문제를 모두 풀면 실패 경험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실시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연구를 위한 설문지 라면서 작성을 부탁하고 Branden의 자아존중감

척도 그리고 자존감과 상관이 없는 다른 척도의 문항(실패 내성 척도와 자기에 성격 검사 문항 일부)을 섞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실험의 성격상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였다.

### 결 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 통제 집단에서 실패 경험에 대한 사전 자존감과 사후 자존감, 사후자존감에서 사전자존감을 뺀 자존감 차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그리고 실패 경험과 집단을 이원변량분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표 2를 살펴보면 집단의 주효과,  $F(2, 39)=1.40$ ,  $ns$ ,와 실패 경험 전후의 주효과,  $F(1, 39)=2.18$ ,  $ns$ ,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과 실패 경험 전후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  $F(2, 39)=6.49$ ,

표 1. 실패 경험에 따른 사전 자존감, 사후 자존감, 자존감 차이점수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자존감 점수		
	사전	사후	차이점수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	78.64 (10.99)	81.29 (10.81)	+2.64 (2.93)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	73.35 (8.41)	71.21 (10.16)	-2.14 (4.91)
통제집단	73.64 (17.23)	75.79 (15.45)	+2.14 (4.35)

( ) 안은 표준편차

표 2. 실패 경험 전후와 집단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862.60	2	431.30	1.40
오차	12025.89	39	308.36	
전후	16.30	1	16.30	2.18
집단 × 전후	96.88	2	48.44	6.49**
오차	291.32	39	7.47	

\*\* $p < .01$ .

$p < .01$ . 집단과 실패 경험 전후 간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사전 자존감 점수와 사후 자존감 점수 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은 사전과 사후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t=-3.38$ ,  $p < .01$ , 내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은 사전, 사후 자존감의 차이가 주변적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t=1.95$ ,  $p < .07$ . 또한 통제집단은 사전, 사후 자존감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2.30$ ,  $p < .05$ .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에서 집단 간 자존감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 통제집단에서 실패 경험의 사전 자존감과 사후 자존감의 변화가 있었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집단은 실패 경험 전보다 경험 후의 자존감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실패 경험 전보다 경험 후의 자존감이 하락하였다. 또한 통제집단은 실패 경험 전의 자존감에 비해 실패 경험 후의 자존감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실패 경험 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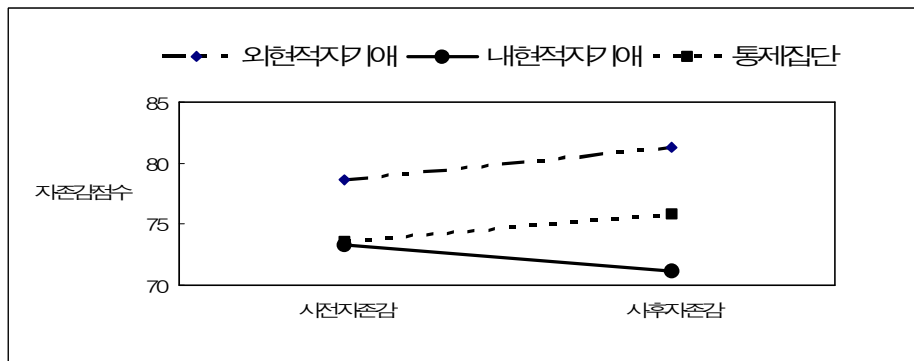


그림 3. 집단별 실패 경험 사전 자존감과 사후 자존감 점수

집단별 실패 경험 전과 후의 자존감 차이 점수를 구하여 이 차이 점수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변량 분석을 하고 Scheffe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실패 경험에 따른 외현적 자기애 집단, 내현적 자기애 집단, 통제 집단 간의 자존감 차이점수가 유의하였다,  $F(2, 39)=6.49, p<.01$ . 그리고 실패 경험에 따른 자존감 차이 점수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 집단과 통제집단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상승했다. 그리고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자존감 차이 점수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실패 경험의 조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참가자에게 실패도, 무관성, 수행 정도, 실패 경험 후 기분을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

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실패 경험 동안에 그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없다고 생각했느냐의 실패도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 집단( $M=2.79$ ), 내현적자기애 성향자 집단( $M=3.57$ ), 통제 집단( $M=3.24$ ) 모두에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다고 하여 처치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또한 실패 경험 동안 문제들이 풀려질 수 없다고 생각했느냐의 무관성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 집단( $M=3.07$ ),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집단 ( $M=3.36$ ), 통제 집단( $M=3.50$ ) 모두에서, 중간 정도로 어렵게 지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패 경험 후에 자신의 수행 정도에 대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 집단 ( $M=5.79$ ),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집단( $M=6.29$ ), 통제 집단( $M=5.50$ ) 모두에서, 어느 정도 실패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실패 경험

표 3. 실패 경험 사후 자존감 점수-사전 자존감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과 Scheffe 검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Scheffe 검증결과
집단 간	193.76	2	96.88	6.49**	내현<외현=통제
집단 내	582.64	39	14.94		
전체	776.41	41			

\*\* $p < .01$ .



표 4. 실패 경험 후 실패도, 무관성, 수행정도, 기분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실패도	무관성	수행정도	기분
외현적 자기에	2.79(1.12)	3.07(1.73)	5.79(1.05)	4.86(1.35)
내현적 자기에	3.57(1.16)	3.36(1.60)	6.29(1.14)	5.00(1.18)
통제	3.24(1.23)	3.50(1.87)	5.50(1.29)	4.64(0.63)

( ) 안은 표준편차

후 기분에 대해서도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M=4.86),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M=5.00), 통제 집단(M=4.64) 모두에서, 약간 기분이 나쁜 쪽으로 지각하였다.

### 논 의

대부분의 자기에 연구들이 자기에적 성격성향자의 내현적 특성보다는 외현적인 특성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를 구분하고, 자기에 성향자의 실패 피드백 전후 자존감 양상을 실험 상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적으로 조작된 실패 경험에 따른 외현적 자기에 집단, 내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 집단의 자존감을 변량분석한 결과, 집단과 자존감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사전 자존감 점수와 사후 자존감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실패 경험 전의 자존감에 비해 실패 경험 후의 자존감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실패 경험 전의 자존감에 비해 실패 경험 후의 자존감이 하락하였다. 또한 통제집단은 실패 경험 전의 자존

감에 비해 실패 경험 후의 자존감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실패 경험 전과 경험 후의 자존감 차이 점수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 경험 후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자존감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Rose(2002)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깊은 불안정성을 지닌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Robbins와 Dupont(1992)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겉으로 복종적이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적대적이라 여기기 때문에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관찰자 평정에서는 적대적이지 않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 자기 소멸적(self-effacing) 방식으로 행동하고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기고양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임상적 관찰과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도 실패 경험 후에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오히려 자존감이 상승하였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실패 경험 후에 자존감이 하락하였다. 이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실패 경험과 같

은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고양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실패 경험 후에 자기 소멸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방어적인 자존감은 실패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고양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형태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이 오히려 하락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달리 자기고양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실패 경험 후에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통제 집단에 비해 자존감 점수가 하락한 것은 부정적 자극에 대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오히려 실패 경험으로 인해 자아의 다른 영역들까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아의 가치감을 떨어뜨리는 과일반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Kernis, Brockner, & Frankel, 1989).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집단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대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차이를 자기에 성격장애의 치료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들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만을 주로 포함한 DSM의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 범주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 특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실패 경험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성공 피드백을 주는

성공 경험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내현적 자기에 집단의 성공 경험 후의 자존감 양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중에서 자기에적 성향자들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임상집단은 자기에적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임상적인 함의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 대상자의 수와 실험참가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실험참가자의 대표성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 실험참가자 수를 늘림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김연 (1985). 우울증의 귀인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세란 (2003).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호균 (1984). 통제 불능 경험 후의 수행 결과와 방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규선 (1999).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실패내성의 직무수행에 대한 예측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 장애진 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umeister, R. F., & Jones, E. E. (1978). When self-presentation is constrained by the targets prior knowledge: consistency and compens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608-618.
- Brown, J. D., & Gallagher, F. M. (1992). Coming to terms with failures: Private self-enhancement and public self-effac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28, 3-22.
- Campbell, W. K., Reeder, G. D., Sedikides, C., & Elliot, A. J. (2000). Narcissism and comparative self-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 329-347.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roto, D. S., & Seligman, M. P.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11-327.
- Kernis, M. H., Brockner, J., & Frankel, B. S. (1989). Self-esteem and reactions to failure: The mediating role of overgener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07-714.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vine, M. (1966). Hypothesis behavior by humans during discrimination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1, 331-338.
- Morf, C. C., & Rhodewalt, F. (1993). Narcissism and self 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68-676.
- Morf, C. C., & Rhodewalt, F. (2001). Expanding the Dynamics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 of Narcissism: Research Directions for the Future. *Psychological Inquiry*, 12, 243-251.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72-685.
- Ro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62-467.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원고접수일 : 2009. 7. 27.

게재결정일 : 2009. 8. 11.

## The Effect of Experiencing Failure on the Self-esteem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Bang Keul Kim**

Gwangju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Soo Sung Oh**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xperiencing failure on the self-esteem of both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Out of 191 undergraduates, We selected three group by means of analyzing their results on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and covert narcissism scale (CNS), as follows 14 overt narcissists, 14 covert narcissists and 14 controls for a total of 42 participants. We measured participants' self-esteem before and after they experienced failure via a discrimination learning task. While the self-esteem scores of overt narcissists and controls increased, those of covert narcissists decreased after experiencing failure.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among self-esteem scores before and after they experienced failure, we confirmed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overt narcissists and covert narcissists, and between covert narcissists and controls. The results suggest that experiencing failure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covert narcissists but not on overt narcissists. These results also show that overt narcissists have positive estimations of themselves and covert narcissists have negative estimations of themselves.

*Key words :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failure experience*